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47
OCT 16 2020

발간년월 2020년 10월 16일 (통권 제147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김지영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역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 극동 전체로 확대 요청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 수산물 환적회사 설립
- 러 국가복지기금, 캄차카 LNG 복합단지 건설 지원
- 야쿠티야 정부, '크리에이티브 클러스터' 오픈 준비
- 러 무르만스크 항만 '북극' 부두, 최고 처리량 기록
- 무르만스크, 북극 요리 지도 만들어 관광을 활성화

주요 통계

- 2020년 7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 2020년 7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 2020년 7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주요 동향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 극동 전체로 확대 요청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의 특혜를 극동지역 전체로 확대할 것을 요구함^{a)}

-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Aleksandr Kozlov) 장관이 블라고베렌스크에서 열린 극동사회·경제 개발 관련 정부위원회 회의에서 이와 같이 요청하였음
- 극동북극개발부는 자유항 제도를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개인사업자들이 비즈니스를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약 2,000명의 개인 사업자들이 자유항 제도를 통해 사업을 시작했으며, 총 9500루블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추진 중임

■ 러시아 선도개발구역(TOR) 제도를 통해 세금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제공함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 외 러시아 선도개발지역(TOR, TOSER)의 투자자들도 세금 면제 및 감면 특혜가 적용되고 있음
- 극동북극개발부 자료에 따르면, 405명의 투자자들이 선도개발구역에 입주해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제공받고 있음(예: 아무르 가스공장, 우도칸(Udokan)^{b)} 등)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김세희 현장실습생, 부산대학교
(051-797-4776)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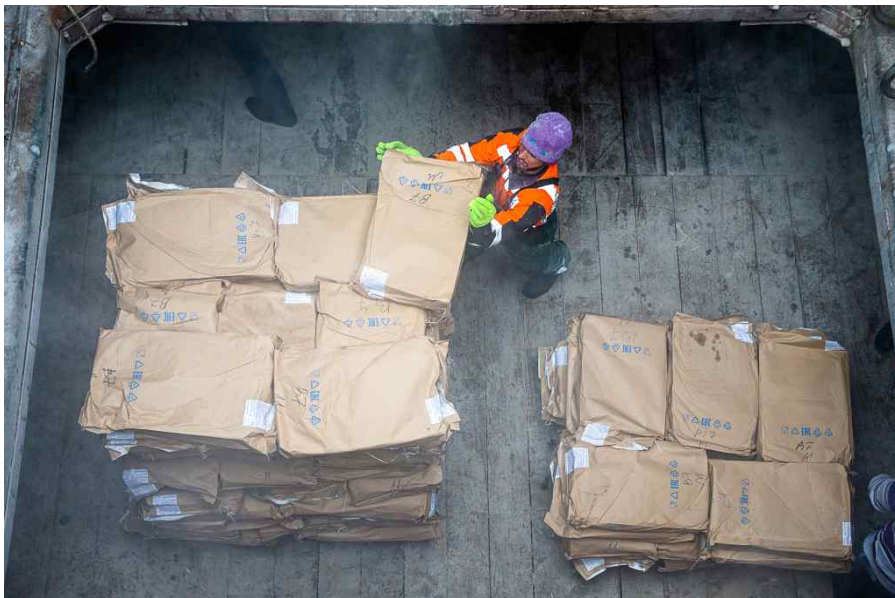
- a)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lgoty_investoram_svobodnogo_porta_vladivostok_mogut_byt_rasprostraneny_na_ves_region.html(2020.1014. 검색)
- b) 자바이칼 대규모 광산 및 석탄 공장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 수산물 환적회사 설립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이 수산물 환적 사업을 시작함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인 ‘데미도프 터미널(Demidov Terminal)’사는 냉동수산물을 해상에 있는 어선에서 항만의 냉장 창고 및 트럭으로 환적하는 서비스를 시작함
- 파벨 니콜라예프(Pavel Nikolaev) ‘데미도프 터미널’사 사장에 따르면, 주요 대상은 어획 및 냉동 생선 제품 및 해산물 운송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회사임

그림. 냉동 수산물 환적 과정(1)



자료: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stividornuyu_kompaniyu_po_perevalke_ryby_organizoval_rezident_spv_vo_vladivostoke.html

■ 데미도프 터미널사는 현재까지 냉동 수산물 1만 500톤을 처리했음

- 환적 서비스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선박 취급의 효율성,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 각 고객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 방식, 복잡한 절차의 신속한 처리 속도로 결정됨
- 파벨 니콜라예프 사장은 “우리 기업의 독창성은 냉동 생선 제품의 하역이 냉동 단지 바로 근처에서 이뤄진다고 강조하고, “선박에서 냉동 창고로 제품을 옮기는데 30초가 걸리지 않아 해동을 방지할 수 있으며, 특히 게와 새우와 같은 생물을 저장하는 과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 그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식품, 건축 자재, 소비재 및 기타 공급품을 사할린 지역으로 선

적하는 작업도 수행한다고 언급함

- 현재까지 자유항 거주기업은 냉동 수산물 1만 500톤을 처리했으며, 섬 지역으로의 공급을 위해 500톤이 수산물을 환적함

■ 회사 설립에 3,850만 루블이 투자되었으며, 24개의 일자리가 창출됨

- 극동개발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거주기업은 환적회사 설립에 3850만 루블(약 49만 불)을 투자함
- 프로젝트 진행 과정 중 ‘데미도프 터미널’사는 선박 하역 및 물품 적재를 위한 다양한 적재 장비와 냉동 창고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으며, 현재까지 24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그림. 냉동 수산물 환적 과정(2)



자료: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stividornuyu_kompaniyu_po_perevalke_ryby_organizoval_rezident_spv_vo_vladivostoke.html

■ 물류서비스 지역을 확대시키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할 것임

- ‘데미도프 터미널’사는 기업 규모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확장된 범위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이를 통해 수산물 배송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러시아 연방의 여러 지역의 고객을 추가 유치할 계획임

- 또한 취급화물 목록 증가에 따라 대용량 운반 장비를 포함한 환적 장비를 추가로 구매해 동시에 여러 선박을 취급할 예정임
- 이는 화물 회전율을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섬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범위를 확대시킬 것임

그림. 냉동 수산물 환적 과정(3)



자료: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stividornuyu_kompaniyu_po_perevalke_ryby_organizoval_rezident_spv_vo_vladivostoke.html

■ 자유항 입주기업 2031개 사가 1,542억 루블(약 20억 불) 이상 투자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는 2031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
- 현재까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들은 극동개발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극동연방관구 경제 발전을 위해 1542억 루블(약 20억 불) 이상을 투자했으며, 1만 7179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 자유항 프로젝트 총 투자 비용은 9848억 루블을 달성했으며, 8만 36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 투자자들이 시행하는 총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9848억 루블(약 127억 불)을 달성했으며, 프로젝트가 완료될 경우 8만 36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그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자료: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stividornuyu_kompaniyu_po_perevalke_ryby_organizoval_rezident_spv_vo_vladivostoke.html

김지영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iyeong11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s.vostrikova1608@gmail.com/051-797-4765)

참고자료

- a)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stividornuyu_kompaniyu_po_perevalke_ryby_organizoval_rezident_spv_vo_vladivostoke.html(검색일: 2020년 10월 13일)

러시아 국가복지기금, 캄차카 LNG 복합단지 건설 지원

■ 러 정부, 국가복지기금을 통해 캄차카에 LNG 해상 환적 터미널 건설을 지원할 예정임^{a)b)}

- 러시아 정부는 국가복지기금이 재원을 조달하며, 연방 목표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정부 참여가 있는 프로젝트에 캄차카 LNG 해상 환적 터미널 건설을 포함했음^{b)}
- 2020년 9월 21일,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서명하여, LNG 해상 환적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가 추가된 국가 프로젝트 리스트가 러시아 연방 정부의 웹사이트에 게재됨^{a)b)}
- 러시아 에너지부와 북극 및 극동북극개발부, 경제개발부, 천연자원부, 재무부, 국방부는 캄차카 지역 해상 LNG 환적 터미널 건설을 고려하여 2020년 10월 5일까지 가스 운송 인프라, 자금 지원 금액 등을 포함한 캄차카 지역으로의 가스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합의된 계획을 러시아 연방 정부에 제출했음^{a)}
- 8월 말,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는 극동 지역 순방에서 가즈프롬과 노바텍에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한 지시를 내렸음^{a)}
- 노바텍(NOVATEK)이 주도하는 '캄차카 액화천연가스(LNG) 해상 환적 터미널 건설' 사업에는 내륙으로의 수송을 위해 북극 기후 조건을 견딜 수 있는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인프라 구축, 단기 LNG 적재, 빙하 내구성이 없는 유조선에서의 액화천연가스 수송 등이 포함되어 있음^{b)}
- 이 프로젝트 시행을 통해 2028년까지 해당 부문 예산에 대한 총수입은 245억 루블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함^{b)}

■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개발 및 공공 인프라 시설에 필요한 가스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a)}

- LNG 환적 터미널은 비체빈가(Bichevinka) 만에 건설될 예정이며, 지역 당국은 이 터미널 건설이 지역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블라디미르 솔로도프 캄차카 준주 총재는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천연가스 부족으로 연료사용을 캄차카 화력발전소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대해 지적하며, 이러한 방식은 현대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낭비적이라고 언급했음
- 따라서 캄차카 LNG 터미널 건설이 이뤄질 경우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터미널 시설과 기반시설 설계가 2020년 마무리되며, 준설작업과 부두 건설 작업도 시작될 예정임
- 터미널 건설을 위한 연방 예산으로부터 약 120억 루블이 배정될 것으로 전망됨

김현진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hyunjink24@gmail.com)

참고자료

a)<https://teknoblog.ru/2020/09/23/107719> (2020년 9월 28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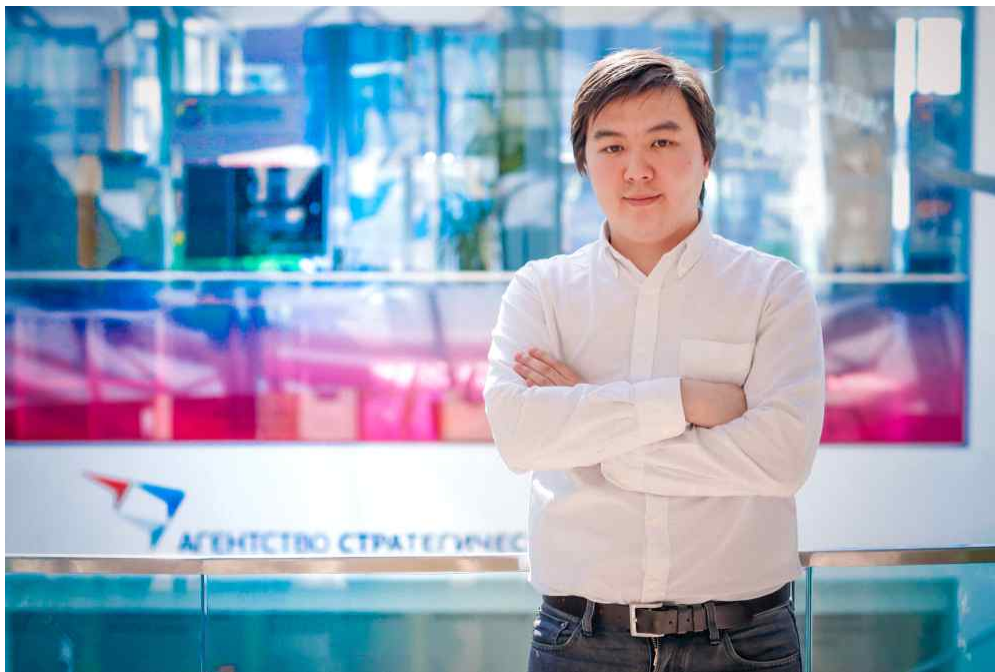
b)<https://seanews.ru/2020/09/23/ru-stroitelstvo-spg-terminala-na-kamchatke-na-kontrole-pravitelstva/> (2020년 9월 28일 검색)

야쿠티야 정부, ‘크리에이티브 클러스터’ 오픈 준비

■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21년 하반기 오픈 계획^{a)}

- 2019년 12월 야쿠티야 정부는 2025년까지 지역의 창조 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을 채택하였으며, 이 계획에 따라 2021년 하반기 ‘The Labor Quarter Cluster’라는 명칭의 크리에이티브 클러스터를 오픈하기 위해 준비 중
- 야쿠티야 개발공사는 지역의 비 원자재 기업 중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0.38%에 불과해, 인터넷 플랫폼 등을 통한 외부 시장 개척이 절실하다며,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미디어 콘텐츠, 디자인, 아키텍처 솔루션을 통해 원자재 부문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를 활성화 시키는데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음
- 개발공사는 육가공 공장으로 이용하던 5층 건물을 개조한 공간에 클러스터가 자리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를 통해 건물과 주변 지역 활성화와 함께 프로젝트 비용도 절감 할 수 있으며, 약 1,2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그림1. 야쿠티야 개발공사의 아파나시 사빈 사무총장



자료: <https://ysia.ru/korporatsiyu-razvitiya-respubliki-saha-yakutiya-vozglavil-afanasij-savvin/>

■ 개발공사의 젊은 리더는 극동에서 가장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 것을 공언^{b)}

- 야쿠티야 개발공사의 아파나시 사빈(Afanasiy Savvin)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은 영화 제작, 디자인, 건축, 음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50개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와 같

은 커뮤니티를 형성한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밝히며, 극동에서 가장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음

- 1986년생인 사빈 사무총장은 2018년 10월 주주총회에서 야쿠티야 개발공사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음
- 사빈 사무총장은 야쿠츠크에서 태어나 북동연방대학교와 모스크바 경영대학원(SKOLKOVO)에서 공부한 후 IT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2017년에는 Replio Technologies라는 벤처 기업을 설립해 한국의 미래에셋 벤처투자의 투자를 유치한 경험도 있음

진희권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hkjin@kmi.re.kr/051-797-4766)

참고자료

- a)<https://tass.com/society/1210379> (2020.10.14 검색)
- b)<https://ysia.ru/korporatsiyu-razvitiya-respubliki-saha-yakutiya-vozglavil-afanasij-savvin/> (2020.10.14. 검색)

러 무르만스크 항만 ‘북극’ 부두, 최고 처리량 기록

■ 러시아 무르만스크 항만에서 가장 높은 처리량을 기록함^{a)}

- 8월 초 무르만스크 항 “북극” 부두에서 “SIBERIA”선박으로 3만 6105톤 규모의 화물이 환적됐으며, 9월에는 제15번 부두에서 “POLA ELISAVETA” 벌크선으로 자갈 3만 6101톤을 환적해 또 한번 최대 기록을 달성함
- 비탈리 블라소프(Vitaly Vlasov)^{b)}는 다목적 부두 및 선박, LCL 방식, 무르만스크 부두 노동자들의 경험으로 최고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언급함
- “SIBERIA” 선박은 중장비 부품, FIBC 화물, 자갈 및 모래 (총 약 2만 5000톤) 등을 운송함
- 비탈리 블라소프는 다양한 화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운송사, 포워딩 회사 및 선주 등 모두 해운 운송의 각 단계별 정확한 배치가 중요함

■ 무르만스크 항만은 북극지역의 화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허브 역할을 함

- 보통 무르만스크 항만에서 화물을 선적한 후, 오비만의 사베타 항만과 기단반도로 운송함
- 또한 북극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물동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김세희 현장실습생, 부산대학교
(051-797-4776)

참고자료

- a)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v_mmtp_idut_aktivnye_raboty_na_arkticheskoy_prichale.html(2020.. 검색)
- b) 무르만스크 항구 주 관리자

무르만스크, 북극 요리 지도 만들어 관광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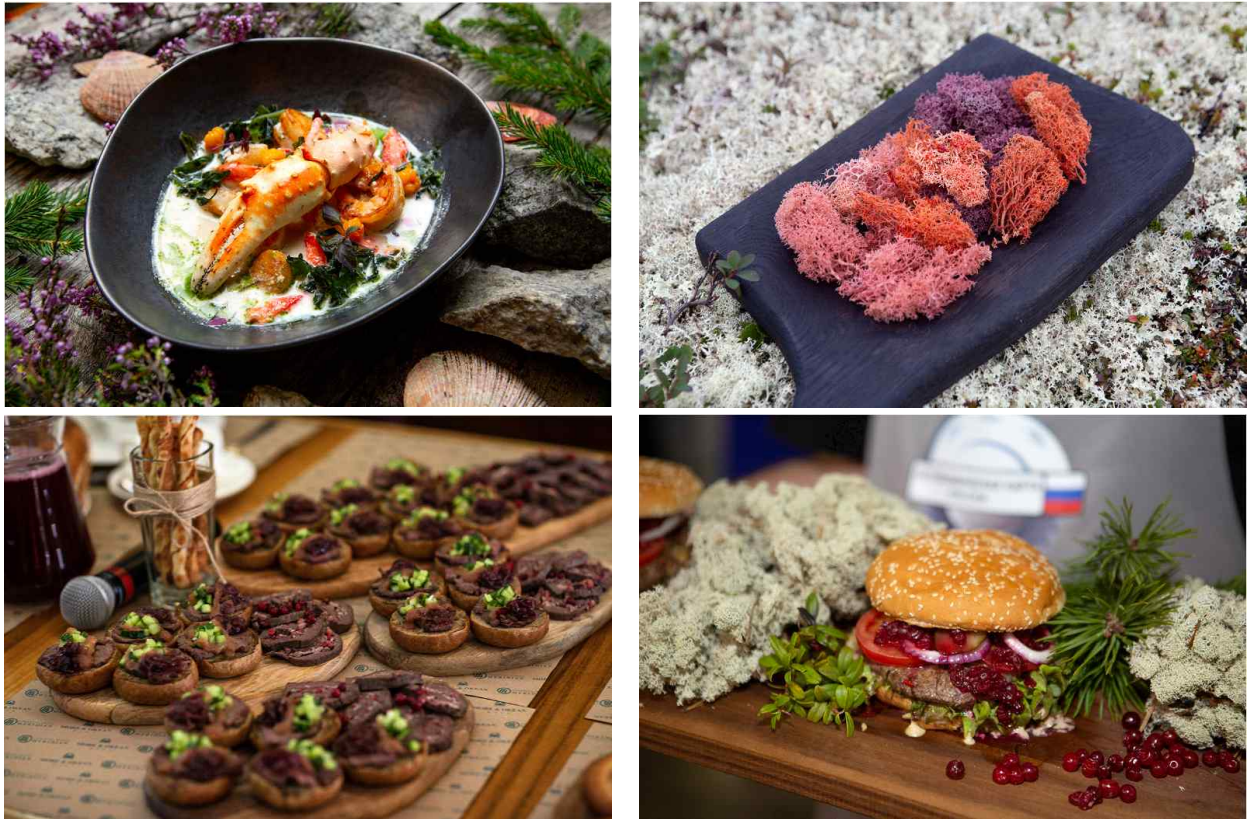
■ 무르만스크 주지사, 북극 음식을 통한 관광 활성화 계획 발표^{a)}

- 안드레이 치비스(Andrei Chibis) 무르만스크 주지사는 ‘Accessible Arctic’ 포럼에서 북극 요리를 활용한 미식 관광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안드레이 주지사는 지역 전체에서 북극 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우선 학교 메뉴에 사슴 고기를 포함시킬 것을 고려중이며, 이는 지역 생산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 올가 쿠즈네초바(Olga Kuznetsova) 부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레스토랑은 지역 특산물로만 요리를 하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와 함께 지역 생산자들에게도 실질적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러시아 미식지도 프로젝트와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음
- 러시아 미식 지도 프로젝트는 요리 및 관광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을 인증하는 시스템으로 무르만스크 지역에서는 현재 7곳의 호텔과 레스토랑 등이 북극 요리 인증서를 받았음
- 이에 대해 지역의 관련 업체는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히며, 관광객 증가는 물론 북극 요리의 홍보 효과로 식재료 판매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북극 최고 요리로 순록고기와 대구, 순록이끼, 점박이 메기 등을 선정^{b)}

- 이에 발맞춰 러시아 미식 지도 프로젝트 보도실은 지난 10월 7일, 최고의 러시아 북극요리 일곱 가지를 소개하며, 요리 방법도 안내하였음
- 보도실은 최고의 북극 요리로 1. 가리비, 새우, 게, 클라우드 베리를 곁들인 생선스프인 우카(ukha), 2. 순록이끼로 만든 칩, 3. 순록고기로 만든 버거, 4. 클라우드 베리 & 파인 너트 케이크, 5. 점박이메기 스테이크, 6. 대구 필레, 7. 사슴고기와 으깬 오이를 곁들인 빵을 선정함

그림1. 러시아 미식지도 프로젝트가 뽑은 최고의 러시아 북극요리



*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우카, 순록이끼로 만든 칩, 순록고기 버거, 사슴고기를 곁들인 빵

자료:<https://www.rbth.com/russian-kitchen/332816-7-best-russian-arctic-cuisine-dishes>

진희권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hkjin@kmi.re.kr/051-797-4766)

참고자료

- a)<https://tass.com/economy/1206305> (2020.10.14. 검색)
- b)<https://www.rbth.com/russian-kitchen/332816-7-best-russian-arctic-cuisine-dishes>
(2020.10.14. 검색)



주요 통계



표. 2020년 7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9/2020 증가율
극동지역	13.9 (+4.6%)	6.2 (+2.7)	20.1	+3.9%
북극해	2.61 (-10.9%)	5.04(-9.9%)	7.65	-10.2%
발트해	9.57(-1.7%)	7.41(-6.3%)	16.98	-4.3%
아조프-흑해	9.16(+9.8%)	9.78 (-8.9%)	18.94	-2.1%
카스피해	0.3 (+28.4%)	0.4 (+7.7%)	0.7	+15.7%
합계	35.6(+2.9%)	28.8(-6.1%)	64.4	-2.1%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울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 <https://www.finam.ru/analysis/newsitem/gruzooborot-morskix-portov-rf-za-pervoe-polugodie-2020-goda-uvelichilsya-na-0-1-20200714-163526/> (검색일: 2020년 10월 10일)
- <https://www.finam.ru/analysis/newsitem/gruzooborot-morskix-portov-rossii-za-7-mesyacev-2020-g-umenshilsya-na-2-1-20200812-142218/> (검색일: 2020년 10월 10일)

표. 2020년 7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300,155.2	66,085.8	912.4	1,343.3	301,067.6	67,429.0
광물 제품	1,601,657.7	7,486.7	24,291.5	45,008.5	1,625,949.2	52,495.2
연료 및 에너지 제품	1,352,223.6	6,406.2	198.2	0	1,352,421.8	6,406.2
생고무 및 화학 제품	5,059.6	61,409.5	853.6	429.0	5,913.2	61,838.4
가죽원료, 모피 제품	0.0	1,020.3	1.6	0.3	1.7	1,020.6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92,419.3	7,832.3	424.8	43.1	92,844.1	7,875.5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10.1	33,472.3	27.8	118.1	17.7	33,590.5
금속 및 금속 제품	32,305.3	52,145.8	315.7	1,053.3	32,621.0	53,199.1
기계류	21,687.5	356,720.4	431.6	801.2	22,119.1	357,521.6
기타	67,833.1	50,040.5	39,737.5	233.7	107,570.5	50,274.2
합계	2,121,107.7	636,213.6	66,996.5	49,030.5	2,188,104.2	685,244.1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gov.ru/folder/230467>(검색일: 2020년 10월 10일)

표. 2020년 7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달러	톤	천,달러	톤	천,달러	톤	천,달러	톤	천,달러	톤	천,달러
선어.,냉장어	7	24.9	-	-	-	-	-	-	7.0	24.9	-	-
냉동어	95,989	112,615.2	1,038	2,129.9	40	38.8	-	-	96,029.3	112,654.0	402	1,097.1
연어류	1,590	7,422.1	-	-	0	0.0	-	-	1,590.2	7,422.1	-	-
넙치	525	2,654.5	-	-	-	-	-	-	525.3	2,654.5	-	-
가자미	1,272	838.0	-	-	-	-	-	-	1,272.1	838.0	-	-
가자미류	2,976	2,268.4	-	-	-	-	-	-	2,976.3	2,268.4	-	-
청어	14,939	10,584.0	-	-	0	0.0	-	-	14,939.2	10,584.0	-	-
대구	8,077	20,723.0	-	-	-	-	-	-	8,077.1	20,723.0	-	-
명태	51,393	49,098.7	-	-	0	0.0	-	-	51,393.1	49,098.7	-	-
농어	17	58.6	-	-	-	-	-	-	17.4	58.6	-	-
간, 곤이 (어란)	1,871	84,799.6	-	-	-	-	-	-	1,871.2	7,722.0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906	1,768.6	-	-	-	-	-	-	906.1	1,768.6	-	-
생선 필렛, 어육	7,305	21,324.0	82	270.1	36	81.7	-	-	7,340.5	21,405.7	0	0.0
건어, 훈제, 염장, 어분	33	193.4	98	569.0	0	0.0	-	-	33.4	193.4	195	1,055.9

갑각류	6,626	112,564.1	27	194.6	-	0.0	-	-	6,625.9	112,564.1	95	606.5
계류	6,180	108,965.4	-	-	-	0.0	-	-	6,179.9	108,965.4	-	-
조개류	3,488	8,411.6	-	-	1	2.0	-	-	3,488.7	8,413.5	-	-
가리비	458	882.4	-	-	-	-	-	-	457.7	882.4	-	-
오징어류, 문어류	2,810	6,055.4	36	184.9	1	2.0	-	-	2,810.2	6,057.4	38	217.6
수산 무척추 동물	431	2,187.6	-	-	0	0.0	-	-	431.2	2,187.5	-	-
해삼류	50	184.3	-	-	0	0.0	-	-	49.7	184.2	-	-
성게류	382	2,003.3	-	-	-	-	-	-	381.5	2,003.3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ru/folder/230467>(검색일: 2020년 10월 10일)